

| 교 회       | 그리스도의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칭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망/경고/격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기는 자에게 약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 베 소     |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있으신 분: 일곱 개의 금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(2:1)     | 수고, 인내, 순결(2:2-3,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처음 사랑을 잃었다</b> ; 처음 것들을 회복하라. 회개하지 아 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(2:4-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를 먹게 할 것(2: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 머 나     | 처음이요 나중이요, 죽었다가 사신 분(2: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란과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부요함(2:9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</b> ; 죽기까지 충성하라(2: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명의 면류관(2:10); 둘째 죽음이 해하지 못함(2:1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버 가 모     |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(2: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거주;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;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(2:1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; <b>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</b> ;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여 검으로 그들과 싸우심(2:14-1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추었던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(2:1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두 아 디 라   |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(2:18)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(2:19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칭 선지자라 하는,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<b>이세벨을 용납</b> ;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음(2:20-21); 회개치 않는 자를 환란에 던질 터이요(2:22) |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;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; 새벽별을 주심(2:26-28)                |
| 사 데       |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(3: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데에서는 몇몇 사람만이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; 그들은 나와 함께 걸을 것이고 흰 옷을 입을 것이다(3: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함</b> ;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하지 않다.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;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처럼 올 것이다(3:2-3)    | 흰 옷을 입을 것;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;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고백할 것(3:5)                      |
| 빌 라 델 비 아 |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참된 분(3:7) |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심; 적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음(3:8); 유대인들로 성도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심(3:9);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땅의 거민을 테스트하기 위해 온 세상에 오는 시험의 순간에서 지키심(3:10) | 곧 오리라;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취하지 않도록 <b>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여라</b> (3:1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임; 하나님의 이름, 하늘로부터,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,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그에게 기록(3:12) |
| 라 오 디 게 아 |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; 하나님의 창조자의 시초(3:1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음</b> (3:15); 부요하다고 착각(3:17-19);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(3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의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(3:21)                        |

이필찬, 『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』 (서울: 성서유니온선교회, 2003), 52-54.